

‘세계 5대 메이저 이벤트’ 창원세계사격선수권 8월 31일 개막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윤덕하 대표팀 감독, 김민정, 진종오, 황용득 대한사격연맹 회장, 허성무 창원시장, 김민지, 김준홍(왼쪽부터)이 대회 성공 개최와 선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 대한체조협회 새 회장에



대한체조협회를 이끌 새 수장으로 이영훈(59) 포스코건설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30일 체조협회는 “지난 27일 협회장 선거에 이영훈 선임 회장 서 이 대표이사를 제 32대 대한체조협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장종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이 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을 거쳐 지난 3월 포스코건설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이 신임 회장은 “다가오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진종오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1등 하겠다”

120개국 4000여명 4개 종목서 자웅을 겨룬다. 10m 공기권총 등 14개 종목에 나설 북한도 22명(선수 12·임원 10)이 등록을 마쳤다.

창원은 2011년 ISSF 바스케트 라나(멕시코) 회장의 권유로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이듬해 4월 영국 런던 ISSF 총회에서 개최지로 선정됐다. 대회 준비도 차질 없이 이뤄졌다. 2016년 3월부터 사업비 366억원을 들여 주요 경기장을 증축 또는 신축했다.

올해 대회는 120개국, 선수단 4000여명이 참여해 4개 종목(권총·소총·산탄총·러닝타

겟), 60개 세부종목에서 자웅을 겨룬다. 10m 공기권총 등 14개 종목에 나설 북한도 22명(선수 12·임원 10)이 등록을 마쳤다. 창원은 2011년 ISSF 바스케트 라나(멕시코) 회장의 권유로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이듬해 4월 영국 런던 ISSF 총회에서 개최지로 선정됐다. 대회 준비도 차질 없이 이뤄졌다. 2016년 3월부터 사업비 366억원을 들여 주요 경기장을 증축 또는 신축했다. 10m 99사대, 10m 결선 10사대, 25m 70사대, 25m 결선 15사대, 50m 80사대, 10m 러닝타겟(RT) 5사대, 50m RT 2사대, 클레이경기장 6면 등을 구축했다. 프레임이벤트 형식으로 4월 열린 창원월드컵을 찾은 라나 회장도 “가장 우수한 사격

장”이라고 극찬했다. ‘사격 코리아’ 우리 선수단의 성적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역대 하계올림픽 최초로 50m 권총 3연패를 달성한 진종오(39·KT)와 2012런던올림픽 여자 25m 권총 금메달리스트 김장미(26·우리은행),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50m 소총복사 2위 김종현(33·KT), 2018창원월드컵사격대회 25m 속사권총 세계기록 보유자 김준홍(28), 여자 10m 공기권총 유망주 김민정(21·이상 KB국민은행) 등이 출격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2020도쿄올림픽 출전권(60장·총 쿼터 360장)이 부여되고, 공기권총~공기소총~트랩 혼성종목이 신설된다. 10m 공기권총에 나설 진종오는 30일 서

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8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이어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모두 5번째 참가다. 국가대표선발전에서 1등만 하다가 처음 2등을 했다. 나이가 들자 체력도 집중력도 떨어지더라. 마지막이란 생각을 해아 나태해지지 않는다. (선발전) 2등이 1등으로 대회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지위 공동위원장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허성무 창원시장은 “미래를 쓰고, 평화를 쓰고, 전 세계에 공정의 메시지를 전달할 의미 있는 대회가 될 것이다.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여자배구 첫 단독 컵대회 8월5일 개막

여자프로배구 컵대회가 남자부와 분리돼 독립적으로 치러진다. 2018 보령·한국도로공사컵 여자프로배구대회가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충남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 컵대회가 남자부와 분리돼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팀 외에도 태국과 베트남 클럽들이 함께한다. GS칼텍스, KGC인삼공사, IBK기업은행, EST(태국)가 A조에 편성됐고,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 흥국생명, 배민뱅크(베트남)가 B조에서 결전을 벌인다. 각 조 1·2위가 토너먼트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안병훈

김민휘

안병훈-김민휘, PGA 첫 우승 아쉽게 놓치다

안병훈(27)과 김민휘(26·이상 CJ대한통운)가 생애 첫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우승을 아깝게 놓쳤다. 안병훈과 김민휘는 30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글렌 에비 골프클럽(파72·7253야드)에서 열린 RBC 캐나다 오픈(총상금 620만달러·약 69억원)에서 세계랭킹 1위 더스턴 존슨(34·미국)과 정상을 놓고 다했지만 모두 공동 준우승에 그쳤다. 둘은 3라

운드까지 17언더파 199타 공동선두에 올라 우승 가능성을 키웠다. 최종라운드에서도 나란히 3타를 줄이며 선전했지만 존슨이 버디 7개(보기 1개)를 몰아치면서 1위 자리를 넘겨주고 말았다. PGA 투어 첫 승을 놓친 안병훈과 김민휘는 대회 직후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각각 21계단과 57계단 오른 40위와 98위를 기록했다. 한편 같은 날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

손슨에 밀려 '캐나다 오픈' 공동 2위

프(LPGA) 투어 스코티시 오픈에선 고진영과 강혜지가 8언더파 276타 공동 3위에 올랐다. 양희영과 김인경도 각각 공동 5위와 7위에 올라 다음달 2일 개막하는 메이저대회 브리티시 오픈에서의 활약을 예고했다. 아리아 주타누간(태국)은 올 시즌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박민비를 제치고 세계랭킹 1위에 등극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야구 (30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	연속 타율	방어율	홈런	실점	실점	도루	실책		
1	두산	99	65	34	0	0.657	-	2승	0.308	4.97	0.717	633	512	131	61	49
2	S K	98	56	41	1	0.577	8.0	1패	0.282	4.27	0.652	542	447	165	77	71
3	한화	101	57	44	0	0.564	9.0	2패	0.276	4.60	0.625	500	500	92	89	62
4	L G	102	53	48	1	0.525	13.0	1승	0.298	4.94	0.608	575	540	107	58	64
5	삼성	102	48	52	2	0.480	17.5	3승	0.289	5.10	0.489	533	560	93	74	57
6	넥센	104	49	55	0	0.471	18.5	4패	0.280	5.02	0.429	559	556	114	71	74
7	K I A	97	44	53	0	0.454	20.0	4패	0.292	5.19	0.551	540	534	111	59	59
8	롯데	98	43	53	2	0.448	20.0	5승	0.289	5.24	0.451	559	568	134	40	85
9	K T	99	42	55	2	0.433	22.0	1패	0.277	5.30	0.458	509	563	139	59	67
10	N C	102	40	62	0	0.392	26.5	1승	0.251	5.41	0.418	409	579	83	60	73

Before & After 7-Game

팀	22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1일	1수	2목	4토	5일	7화	8수
K I A	○	○	○	○	○	○	○	○	○	○	○	○	○	○
두산	○	○	○	○	○	○	○	○	○	○	○	○	○	○
롯데	○	○	○	○	○	○	○	○	○	○	○	○	○	○
N C	○	○	○	○	○	○	○	○	○	○	○	○	○	○
S K	○	○	○	○	○	○	○	○	○	○	○	○	○	○
L G	○	○	○	○	○	○	○	○	○	○	○	○	○	○
넥센	○	○	○	○	○	○	○	○	○	○	○	○	○	○
한화	○	○	○	○	○	○	○	○	○	○	○	○	○	○
삼성	○	○	○	○	○	○	○	○	○	○	○	○	○	○
K T	○	○	○	○	○	○	○	○	○	○	○	○	○	○

팀간승패-남은경기

팀	KIA	두산	롯데	NC	SK	LG	넥센	한화	삼성	KT
KIA	5-0-6	2-0-4	5-0-6	5-0-4	5-0-7	7-0-5	3-0-8	4-0-7	8-0-6	
두산	5	9-0-2	9-0-2	5-0-5	8-0-0	5-0-6	7-0-5	10-0-4	6-0-5	
롯데	10	5	6-0-5	7-0-6	3-1-8	8-0-4	3-0-7	2-0-10	8-1-2	
NC	5	5	5	4-0-8	7-0-7	5-0-7	4-0-7	4-0-5	3-0-8	
SK	7	6	3	4	6-0-4	5-0-4	8-0-4	6-1-4	8-0-4	
LG	4	8	4	2	6	10-0-2	4-0-8	7-0-5	6-0-4	
넥센	4	5	4	4	7	4	6-0-8	8-0-3	7-0-4	
한화	5	4	6	5	4	4	16	6-0-5	4-0-4	
삼성	5	2	4	7	5	4	16	5	5-1-5	
KT	2	5	5	5	4	6	16	8	5	

(승-무-패) *팀간경기없음

AG 카누 남북단일팀 첫 합동 훈련... “한배 타니까 좋네요”

때론 진지했고, 때론 화기애애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카누 드래곤보트(용선)에 출전하는 남북단일팀이 30일 충북 충주시 탄금호 조정경기장에서 첫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여자 드래곤보트 남측 지도자인 강근영 감독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한배를 탔다”며 합동 훈련 분위기를 전했다. 단일팀은 8월 21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훈련을 진행한 뒤 결전의 장소로 향할 예정이다.

중주 | 뉴스스

메이저리그 (30일)

경기결과	메이저리그	시카고C	5-2	St. 루이스
애리조나	5-4	샌디에이고	4-1	LAD
뉴욕Y	6-3	캔자스시티	4-1	MIA
보스턴	3-0	미네소타	5-0	워싱턴
플로리다	3-2	오�클랜드	4-0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11-5	탬파베이	4-3	휴스턴
클리블랜드	8-1	디트로이트	1-0	피츠버그
뉴욕M	1-0	피츠버그	8-5	LAA
샌프란시스코	8-5	밀워키	7-4	시애틀
토론토	7-4	시카고W		

아마추어 경기결과 (30일)

농구

- 제 73회 전국 남녀 종합 농구선수권대회(영광)
 - 일반부 예선전=대구시청 81-62 국일정공, 김천시청 70-65 사천시청
 - 남자 고등부 준결승전=전주교 80-69 낙성고, 홍대부교 79-76 삼일상고
 - 남자 중등부 준결승전=양정중 71-44 전주남중, 휘문중 91-89 삼선중
- 2018 하계 전국 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경북 경산실내체육관)
 - 고등부 단체전 최종 순위=① 동지고, ② 우석고, ③ 김천중영고, ④ 비봉고

경기 예고

프로야구 (31일)

2018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LG	잠실	두산	넥센	인천	SK
(양천구)	(유치관)	(화랑면)	(신체스)	(신체스)	(신체스)
오후6시30분, KBSN스포츠		오후6시30분, SPOTV			
KT	대전	한화	NC	대구	삼성
(고령포)	(유구진)	(잠실)	(대구)	(마음리)	(마음리)
오후6시30분, MBC스포츠토틀러스, 대전 CM B, 대전방송-R, 대전MBC-R, 대전KBS-R		오후6시30분, SBS스포츠, 대구방송-R, KNN-R, 대구MBC-R			
롯데	광주	KIA			
(관동동)	(망가역)	(망가역)			
오후6시30분, SPOTV2, 광주 CMB, KNN-R, 부산MBC-R, KBC-R					

아마추어 경기예고 (31일)

야구

- 제 52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목동)
 - 1회전=인성고-부산고(오전9시), 부산공고-청담고(오후3시), 라온고-서울고(오후5시30분)
- 제 17회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합천)
- 제 73회 전국 남녀 종합 농구선수권대회(영광, 오전11시)
- 2018년 춘천오픈테니스대회(춘천시 송암국제테니스코트)
- 2018 최창기 전국 대학 배드민턴연맹전(강원도 철원군, 오전10시)
- 2018 세계 개인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중국 난징)
- 2018 KLPGA 파워플레이스 점프투어 with 솔라고 CC 14차전(군산, 오전6시)
- 2018 세계 대학 선수권대회(크로아티아 리예카)
- 제 14회 여자 월드컵(영국 런던)
- 2018 홍콩 오픈 주니어 대회(홍콩)
- 2018 하계 전국 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경북 경산실내체육관, 오전10시)
- 2018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회(체코 클라드노)